

## 순교와 부활은 욕심이 죽고 양심만 남는 것

순교는 종교를 위하여, 즉 자신이 믿는 신(神)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부활은 다시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두 용어는 때려야 될 수 없는 함수관계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성경 등 종교 경전 속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 순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예수를 증거하다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을 순교하였다고 명시하였고, 신라에서 불교 도입과정에서 죽은 '이차돈'을 순교자라 하였으며, 이차돈에서 천주교 도입 초기에 목 베임 받아 죽은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도 순교자라고 하며 그 공적을 기리고 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에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레17:11).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레17:14).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된 것과 하나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뇨(고전3:16).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막20:38). 등의 말씀을 음미해 보면, 살아 있는 사람 속에 그것도 핏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였고, 사람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명확히 표현해 놓았으니 그 육체가 죽게 된 것을 '순교'라 말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배어진다.

그리고 사람의 육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고전3:16)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육적 순교는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결과가 되어 천국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자가 되어 지옥 중에서도 아랫목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 명백한 이치를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치에 맞지 않고 오인하는 가장 큰 원인은, 성경이나 불경 등 종교 경전의 영적 말씀을 영적(靈的)으로 풀지 않고 육적(肉的)으로만 풀기 때문이다. 또한 경전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하늘의 비밀 즉 천기(天機)에 속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간파하였기 때문이다.

영적 순교를 의미하는 성경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마5: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 (마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이 내용은 둘 다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및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는 내용에서 천국에 들어갔으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되어



위의 이슬성신 사진은 선문대 김중석 교수님이 "2006년도 춘계국제학술대회(서울대학교)" "승리시대 조형의 신비체험"을 발표하면서 소개한 것으로 평택재단(2004.6.24)에서 직접 촬영한 것이다.

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3:20) 사람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는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것과 마음이 청결한 것 역시 동일한 결과에 대한 다른 표현이 되는데,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되는 양심(良心)과 마귀의 영이 되는 욕심(慾心)의 두 가지가 있으며, 마귀의 마음인 욕심이 없어져 하나님으로 거듭났으니 하나님이 된 것이요, 천국에 들어갔다가 되면서, 양심과 욕심의 둘 중 하나가 없어졌으니, 둘 다를 가진 자보다는 가난해졌고 더러운 욕심이 없어졌으니 청결해진 것이요 순교된 것이 된다.

### 부활에 대해서

부활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사26:19)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
- (사25:8)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여 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 (고전15: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 (고전15:54)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긴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 (롬8: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 (계9:6)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원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다

위에 언급된 성경 구절들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없어지고 심지어 죽기를 원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함으로써 죽을 존재가 죽지 않는 존재로 바뀌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즉 부활이 이루어진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결코 육체가 죽

어서 죽게 되었다고 창세기 3장 3절에 기록이 등장하는데 죽음이 이르게 하는 요인들을 모아보면 (욕심=죄=마귀=선악과=사망)이라는 등식이 성립된다.

이제 생명을 죽이는 원흉이 욕심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야고보서(1:15)의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겠다. "욕심은 무엇이 부럽니까?" 이 질문은 승리제단에 계시는 '이간자'인 동방의인께서 저희 성도들에게 던지신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하시고 바로 "욕심은 '나'라는 주체의식이 부럽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죄가 되니 '나'라는 주체의식은 그 욕심의 뿌리가 되므로 '원죄(原罪)'요 원죄는 또한 '선악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창세 이후 처음으로 죽음의 원인을 밝히신 것이다. 어떤 병이든 그 병의 원인을 정확히 밝히는 의사가 그 병을 근치할 능력의 소유자임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동방의 의인 앞으로 '영국 왕들이 다 와서 굴복한다'고 기록(이사야 41:1-9)되어 있고 또한 이사야서(26:19)에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즉 구세주가 나타나면 죽을 인생들에게 이슬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요 그 이슬성령에 의해 땅에서 죽음이 없어질 것이라고 분명하게 소명되어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마귀의 마음인 '욕심'이 순교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완전히 채워진 존재가 하나님으로 부활이 된 구세주이며, 그래서 성경(이사야43:10-11)은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고 기록되어, 하나님이 직접 구세주로 오실 것이라고 밝혀 놓은 것이다. 또한 구세주가 출현할 시기에 대해서는 성경(이사야41:4)에서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나'라니 나중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 나중은 또한 고린도전서 (15:26)에서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라고 하여 맨 나중, 즉 말세에 출현할 것'이라고 암시해 놓았다.

그 말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명시된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쉬시게 되는 안식일이며, 그 안식일은 또한 인류역사 7000년대에 이루어질 지상천국임을 알리는 것이다. 즉 내(良心(욕심), 假我(가아))가 죽어야 내(良心(양심), 眞我(진아))가 산다는 것으로서, 순교(殉物)와 부활(復生)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또한 이것은 불개(佛殼)에서 흔히 회자되는 방생(放生)이라는 용어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81>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1,350 명이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이 완전히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면, 한 사람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1,350명이 따라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 한 사람이 1,350명을 구원하게 되어 있는 고로 의로운 자, 하늘의 사람이 또 한 명 생기면 2,700명이 되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완전히 이루어진 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구원의 숫자가 1,350명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이 초창기에 이 말씀을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1,350명만 해도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 이기는 삶

## 필사적 커뮤니케이션

무능한 팀원들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 사고 상자에 찌른 사고가 하나만 있어도 나머지 사고도 쉬 썩게 되듯, 무능한 사람은 또 무능한 사람을 양성하는 법이다. 조직의 생사를 책임지고 있는 리더는 그런 관점에서 무능한 사람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우선, 미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리더의 첫째 임무이고, 사전에 정기적으로 있는 그대로 피드백을 해주어야 하며, 그들의 경력 이행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도덕성이다. 과거, 학생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도덕성이다. 과거, 학생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도덕성이다. 과거, 학생을 최대한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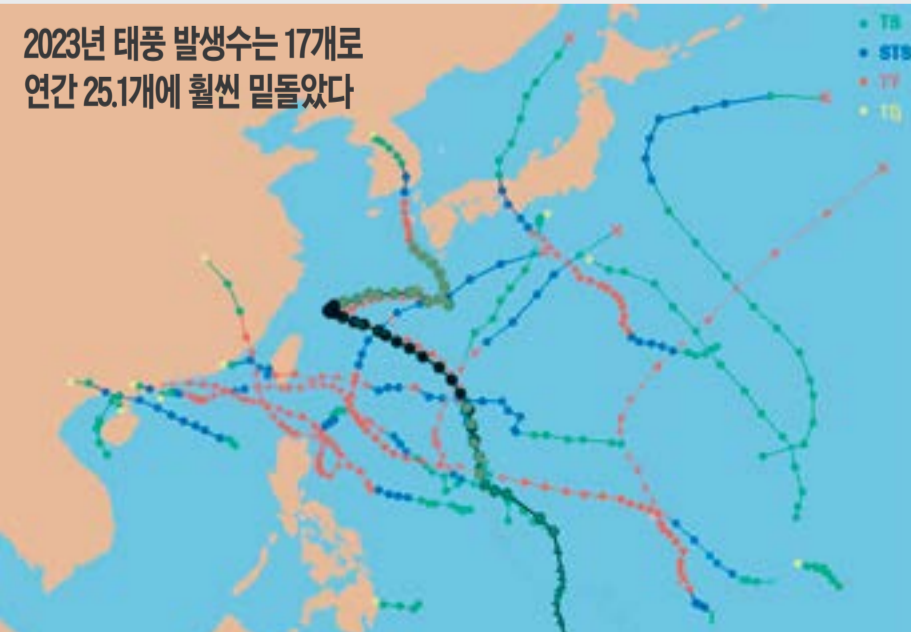
에스키모는 들개를 사냥할 때 날카로운 창에 동물의 피를 발라 들개에 세워서 냄새를 맡고 모여든 들개들은 피를 핥다가 추운 날씨 탓에 허가 마비되고 자신의 혀에서 피가 나와도 누구의 피인지 모르고 계속 창을 핥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죽어간다고 한다. 그러므로 죽지 않으려면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되면 창의력과 독창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다. 관습이라는 것은 그저 따라만 하면 참 편하고 문제가 발생해도 '관습에 따라 했다'라고 하면 그만이지만, 들개처럼 창끝의 피를 핥기만 해서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지게 된다. 리더는 그러한 관습에 젖어있는 팀

원들에게 단호한 일침을 가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지적하고 또 지적해야 한다.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야 겨우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능한 팀원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유지시키고,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매번 같은 내용일지라도 계속 지적해야 한다. 절대로 직언을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필사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다. 리더가 어떤 목표를 이루려면 자신의 생각을 필사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나 조직은 움직이지 않는다.

근육이 생성되는 원리가 그렇다. 근육은 강한 자극을 받으면 이를 견뎌내기 위해서 저항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근섬유에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근육은 이렇게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특유의 재생력을 발휘한다. 이 복구의 과정에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근육통이다. 일종의 성장통인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꿈꾸는 아름다운 근육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극 때문에 생긴 상처를 치유하며 생긴 일종의 흉터인 셈이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는 방법도 이와 같다. 매번 감당할 수 있는 만만한 자극만으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빼근하게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자극을 가해야만 이를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근육이 자란다. 통증 없이는 성장도 없다. 위대한 업적은 반드시 커다란 고통이라는 발을 갈아서 이루어진다. 갈지 않고 그냥 둔 발은 잠초만 이 무성할 뿐이다. 사람도 고통을 겪지 않고서는 언제까지나 평범함과 천박함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불가사의한 제6호 카는 태풍의 경로



7/28 03:00(한국시간) 광 서쪽 730km 해상에서 열대성저기압(TD)이 태풍 6호 카가 되었다. 같은날 강풍역(15m/s)이 확장되어 대형태풍으로 발달하였다. 카는 태풍이 대만 북동쪽의 동중국해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8월 4일(금)에 태풍의 경로가 뒷걸음치는 불가사의한 진행을 하더니 U턴이 아닌 V턴을 해서 오기나와 제도를 양쪽으로 통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8월 7일에 급기야 직각으로 꺾어서 8월 10일 한반도를 종단하였는데 기상관측 이래(1951년) 처음으로 한반도를 종단한 태풍이었다고 한다. 대만과 중국 앞바다에서 카는 태풍이 오랜 진로를 추진하는 미스터리한 초유의 행보는 신(神)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며, 태풍의 총칭지는 그 신(神)이 계신 나라를 알려준다. (※ 정도령·미륵부처님은 우리나라에 태풍이 상륙해도 세기를 조절하여 약한 바람 수준으로 만들었으니까 일관되게 한반도에 태풍을 못 불어오게 하겠다는 공약이 지켜지고 있다고 하신다.)

작년 8월 10일에 태풍 카는 한반도를 종단하여 지나갔는데 그 다음날 11일에도 태풍의 여파로 수도권 강원도 일대에 비가 내렸지만, 8월 12일 성탄절에는 청명하고 선선한 날씨를 연출했다.

### 정도령 5대 공약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나라로 태풍이 못 불어오게 하겠다.
3.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풍년 들게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